

# “사회문제 해결할 대학생 개발자 모였다” 제1회 <GDSC x GIST 해커톤> 개최

- 지스트, 구글이 운영하는 대학생 개발자 모임(GDSC) 및 다양한 기업과 협력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경험의 장 열어... 개발역량 강화 및 사회현안 해결 목표



▲ 지스트 AI studio에서 제1회 <GDSCxGIST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직무대행 박래길) 미래교육센터(센터장 조정희)가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1회 <GDSC\* X GIST 해커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소프트웨어 기반 아이디어 개발 경진대회는 총 50명의 학생이 12개 팀으로 참가했으며 지스트 AI studio에서 4월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진행됐다.

\* GDSC(Google Developer Student Clubs) : 구글이 운영하는 대학생 개발자 모임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Google 소속 개발 동아리 GDSC가 참여하고 지스트 미래교육센터, AI 융합대학지원사업, AI K-Digital Platform, AI 대학원이 주관했으며, Google Developers, AWS,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쏘카,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다양한 기업들의 후원을 받았다.

대회의 시작과 함께 지스트 기전공학부를 졸업한 류석문 쏘카 CTO(기술책임자)가 「프로그래머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참가자들

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대회는 실질적인 개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개발 역량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길렀다.



▲ 제1회 <GDSC×GIST 해커톤> 참가자들이 SW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우울과 외로움', '지역사회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 '환경과 기후 위기', '인구 충격과 세대 격차', '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발굴했다.

대학장상은 '서광포팀'(김산, 박성진, 심수연, 이정우, 최경민)이 수상했으며, **AWS Head of APJ STJ상**은 '디너쇼팀'(김여원 배성호, 신재룡, 이정환, 전우석)이, **CJ 올리브네트웍스 CTO상**은 '코드워리어팀'(김철희, 고강빈, 이재선, 장원식)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조정희 대학장(미래교육센터장 겸무)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